

더 커진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요구 목소리 민주노총·금속노조, 평택구미 결의대회 ... “니토 먹튀 용납 안 해”



한국옵티칼지회는 2023년 1월 30일 불탄 구미공장에 농성을 꾸렸다. 올해 초 구미시가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철거를 조건부 승인하자 1월 8일 박정혜·소현숙 두 명 조합원이 구미공장 출하장 건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지회는 지난 5월 19일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천막을 쳤다. 결의대회가 열린 이날, 한국옵티칼지회의 구미공장 농성은 542일째, 고공농성은 199일째를 맞았다.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 앞 농성은 68일 차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24일 오후 경기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일본 니토덴코 그룹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아래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외투 먹튀 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니토덴코 자본은 공장 화재 보험금 챙기고 평택공장으로 물량 그대로 빼내 가서 아무 손해를 입지 않았다”라며 “노동자들만 갑자기 일터를 잃고 2년째 고용승계를 외치며 싸우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측은 같은 해 11월 폐업을 결정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당시 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지회는 공장 재건을 요구했다. 구미공장 재가동이 어려우면 한국니토옵티칼에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한국옵티칼 먹튀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한국옵티칼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갖은 세계 혜택을 받아온 사실을 설명하며 “정부는 외투 자본의 막대한 먹튀와 노동자 탄압을 왜 가만히 보고 있냐”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외투 먹튀 방지법’ 필요성을 제기하며 “외투 먹튀와 부당해고를 제대로 막아내기 위한 옵티컬 투쟁에 금속노조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일본 니토덴코 그룹의 자회사로 두 곳은 각각 구미와 평택에서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왔다. 니토덴코가 지분 전부를 갖고 있다.

최현환 노조 한국옵티칼지회장은 “평택공장에 우리 조합원(7명)이 들어갈 자리는 많다. 사측은 일자리는 있지만, 고용승계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라며 분노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반드시 승리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평소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같은 작업 과정을 거쳐 같은 물품을 만든다. 하지만 니토덴코는 노동자들의 공장 재건, 고용승계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이들을 내팽개쳤다. 한국옵티칼 기존 물량만 니토옵티칼 평택으로 가져갔다.

높였다. 최 지회장은 “다시 일하고 싶다. 불탄 공장 옥상에 올라 무더위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두 조합원이 하루빨리 내려오고 유틸컬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끝까지 연대해달라” 고 호소했다.

한편, 같은 시간 구미 한국유틸칼 공장에서 영남권 결의대회도 열렸다. 200여 일 불탄 구미공장 건물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소현숙 한국유틸칼지회 조합원은 전화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결의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했다.

박정혜 조합원은 “가족들 생각도 나고 솔직히 힘든 시간이 한 번씩 오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자본이 원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소현숙 조합원은 “해고를 당하고서 우리 같이 먹튀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라며 “외투 자본들이 다시는 함부로 먹튀하고 노동자들 해고하는 짓을 벌이지 못하게 이번 싸움 반드시 이기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거동고조선하청지회 22일 국회 기자회견 “원청·정부가 해결해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주영·김태선·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 원청에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조속한 대책 마련과 노조법 개정 수용을 주문했다.

2023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바꿨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529억 원을 기록했다. 수주 소식도 계속 들린다. 올 상반기 수주가 이미 전년도 금액을 뛰어넘었다. 3년 치가 넘는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하청노동자들 처지는 다르다. 오히려 임금체불과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 이라고 입을 모았다. 위협의 외주화도 여전하다. 중대재해로 하

청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른다.

거동고하청지회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특히 낮은 기성금 문제를 제기했다. 지회는 한화오션 원청이 단가, 시수와 능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청업체에 기성금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낮은 기성금 탓에 하청업체 임금체불과 4대 보험료 미납이 끊이지 않는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가 지난 7월 1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지회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한화오션 하청업체 스무 곳 대부분 억 단위 적자 상태다. 지회는 “기성금 후려치기는 결국 업체 폐업을 불러온다” 라며 “하청노동자들은 일하는 동안 저임금, 그마저도 제때 못 받다 결국 업체 폐업으로 일자리 잃고 임금도 떼인다” 라고 설명했다.

지회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은 결국 원청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하청 업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원청 사용

자가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나와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조선업 상생 협약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단계 하도급,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해결하지 않고서 조선소에서 상생은 어렵다는 것. 이들은 “심지어 정부는 지난해 조선업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하청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아예 배제했다” 라며 “상생은커녕 무책임한 정부와 원청 탓에 숙련노동자들이 조선소에서 쫓겨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허원 노조원장은 “정부가 조선소의 복잡한 고용구조를 해결해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가 풀린다” 라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지회는 “삭감한 임금 30% 돌려달라고 2년 전 정당한 권리 행사에 나선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손해배상·가압류로 맞섰다” 라며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